

아라



언니

25조 추경 풀린다는데 부동산이랑 주식 오를까?



주아

그게 본 회차 Q1이야

Q&A 4월 3주차 (2026-04-20, parent: Part 4-1강)

두 분 질문이야

공부하는 돌고래님 — 25조 추경 부동산·증시 영향

간식먹는 펭귄님 — K자 시대 액티브 vs 패시브

아라



추경 먼저



주아

오케이

자산별 시차가 핵심

주식은 즉각

추경 기대 보름 + 실제 살포 후 보름

사람들이 소비보다 주식 매수해

부동산은 3~6개월 간접 지지

25조로는 추세 못 만들어

DSR 강화 + 가계부채 압박 때문

물가는 12~18개월

근데 최근엔 9~12개월로 단축됐어

정보 전달이 빨라졌거든

아라



그럼 추경 좋은 거 아니야?



주아

원타임 효과야 — 한 달짜리

펀더멘털 개선 아니고 유동성

착각하면 안 돼

영국 리즈 트러스 vs 한국

영국 2022년 사례 알아?

아라



총리 45일 만에 사퇴한 사람?



주아

맞아

리즈 트러스가 재원 없이 감세 + 지출 증액했어

→ 채권시장 반란 + 파운드 폭락

→ **45일 만에 사퇴**

GDP 부채가 **105%**였거든

한국은 GDP 부채 **50%**

초과세수 + 국채 발행 無 → 멀쩡

아라



왜 한국만 괜찮아?



주아

베이비부머 차이

한국 베이비부머는 1954~1974년생

가장 어린 사람이 **52세 (세금 빵빵 납부)**

영국은 1946~1964년생

가장 어린 사람이 **62세 (거의 은퇴)**

세금 안 내고 복지 받는 고령층 ↑

→ 국가 부채 폭증

아라



그럼 한국은 영원히 괜찮아?



주아

아니. 2~3년 뒤

Part 4-1강의 J커브가 한국에도 2026~2027년부터 본격 진입 예고야

그때부터 추경 = 주가 하락

지금은 한국이 재정 지배 단계가 아니라 추경이 먹히는 시기

2~3년 동안 — 추경 = 증시 희소식

2~3년 뒤 — 추경 = 증시 악재 (J커브 진입)

인플레이션 2파 합류

1파 — 공급 충격 (이란 전쟁 유가)

2파 — 수요 충격 (추경 + 금리 인하)

2026 하반기 = 1파 + 2파 만나는 구간

→ 쌍봉 인플레이션 위험

한국은행이 추경 풀린 만큼 돈을 흡수해야 2파 완화

신현송 총재 정책 방향이 핵심

아라

**Q2로 가자**



주아

K자 시대 액티브 vs 패시브

K자 시대 산업 격차 확실하잖아

정부 정책 밀어주기로 액티브 펀드 출시 줄지음

근데 **강사 결론은 여전히 패시브가 정답**

아라


왜?



주아

패시브 36년 수익률 보자

원화 환산 연평균, 배당 재투자 기준

S&P 500 — **13~14%**

KOSPI — 7~8%

미국 국채 10년물 — **7~8%**

닛케이 225 — 4~5%

한국 주식 = 미국 국채

아라


할



주아

적극 가정(배당 재투자) 다 넣어도 36년간 미국 국채와 동일

미국만이 지속 우상향

다른 모든 나라는 자본 유출이 너무 커

한국 코스피는 계단식

1988~89 — 계단 + 급등

1990~04 (15년) — 박스피

2005~07 — 계단 + 급등

2008~23 (13년) — 박스피

2024~26 — 계단 + 급등

측정 시점이 수익률을 결정해

2024년 말 기준 16년 수익률 — 연 4~5% (미국 국채의 3분의 2)

2026-04 기준 16년 수익률 — 연 10~11%

같은 자산이 2배 차이!

아라



그럼 한국 어떻게 해?



주아

한국 = 2~3년 보유 후 매도가 정답

안 팔면 박스피 10~15년

"이번엔 다르다"는 매번 상승장마다 나왔지만 항상 틀림

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 거상이 한국에 없는 이유

박스피 12~15년을 견딜 인간이 없거든

SPIVA — 액티브 vs 패시브

10년 이상 액티브가 패시브 이긴 비율

미국 — 8~15%

유럽 — ~10%

일본 — ~18%

최대 18%, 미국은 10명 중 1명만 패시브 이김

그 10%를 사전 골라낼 방법 없어

아라



유명한 펀드 매니저는?



주아

드러켄밀러는 30년간 손실 0이야

그러나 자기 돈만 굴려

거대 기관 돈만 받아

개인은 그런 펀드에 못 들어감

액티브 3 함정

① 비용 비대칭

손실 구간에서 수수료가 수익을 더 크게 잡아먹어

② 모멘텀 역습

상승장에 가장 고평가 자산 집중 투자 → 하락 시 낙폭 극대화

③ 생존자 편향

망한 펀드는 통계에서 제외 → 수익률 통계 과장

ARK (돈나무 언니) 사례

상승장에 시장보다 2~3배 수익률

→ 박살날 때 훨씬 더 박살

액티브는 모멘텀 단기 (2~3년)에만 의미

K자 시대 강사 권고

아라



한국이 미국 따라잡을 수 없어?



주아

불가능

일본도 80% 반도체 점유했지만

미국 상승률의 3분의 1만 따라옴

**투자의 코어는 여전히 미국 중심 + 글로벌 자산 (금)에
관심**

 1

한 나라의 정치·경제·규제 영향 받는 자산보다 글로벌
자산(금) 중심

마무리

본 회차로 한국 추경의 단기 호재 + 장기 청구서 시각

+ 패시브·액티브 K자 시대 가이드 정리

지금은 한국 추경이 작동하는 2~3년 희소식 시기

그러나 J커브가 본격 작동하면 같은 추경이 악재로 변해

■ 추경 + K자 시대 모니터링 신호

- 01** 한국 J커브 작동 2~3년 뒤

— 그때부터 추경 = 증시 악재. 현재는 희소식 시기
- 02** 2026 하반기 인플레이 쌍봉

— 1파(공급) + 2파(수요) 합류. 한은 흡수가 핵심
- 03** 미국 S&P·나스닥 100 = 장기 코어

— 36년 13~14% 검증. 좋은 기회 시 왕창 + 평소 분산 적립
- 04** 한국 = 2~3년 타이밍 전술

— 계단 오를 때 타고 치솟으면 비중 축소. 안 팔면 박스피 10~15년



주아

다음 강에서 한국 부채 J커브 본격 시점 정밀 진단해준대

다음 강 올라오면 또 풀어줄게

아라



고마워 언니

글로벌 자산 비중 다시 봐야겠다

본 정리는 박종훈의 지식한방 Q&A 4월 3주차 회차(2026-04-20, parent: Part 4-1강) 콘텐츠 정리본이다. 강사 본인 정수 + 강의 자체 정량(36년 수익률·SPIVA·영국 vs 한국 부채) 인용으로 구성. 외부 자료 보강은 본 회차에서 사용하지 않았다.